

DOSBOX에서 WinL^AT_EX

노바 데 히

2021년 7월 6일

목차

1	들어가기	1
2	사용법	1
3	WinL ^A T _E X과 DVIWIN	2
3.1	문서 작성과 샘플 문서	2
3.2	출력	4
4	결론	5

1 들어가기



AT286을 처음 가졌던 날을 기억하는가? 허큘리스 카드에 흑백 모니터, 1KB의 광활한 RAM을 가진 기계에서 Extended Memory를 잡아주거나, AdLib 사운드 모듈을 끼우고 음향을 주기 위해 고생하던 기억이 있는가? 그리고 그 286에서 실행되던 Windows 3.1과, WinL^AT_EX이 있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애 최초의 ‘한글’ T_EX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때의 기억을 돌이켜보려고 DOSBOX에 WINLATEX을 올려본다.

2 사용법

먼저 <https://www.dosbox.com>에 접속하여 DOSBOX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고, 실행한다. 그러면 `z:>` 프롬프트가 나타난다.

프롬프트에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그림 1).

```
mount c "PATH_TO"\WINLATEXDOSBOX
```

```
C:
```

AUTOEXEC.BAT

그러면 약간의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현재의 DOS가 한글 Windows와 호환성이 없다는 것이다. 무시하고 아무 키나 누르면 진행된다. 한글 Windows 3.1이 한글 DOS를 요구하지만, DOSBOX의 기본 DOS로도 실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

윈도우즈가 잘 실행되고, WinL^AT_EX 폴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그림 1. DOSBOX의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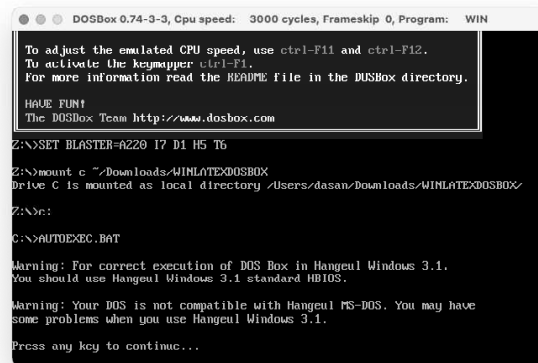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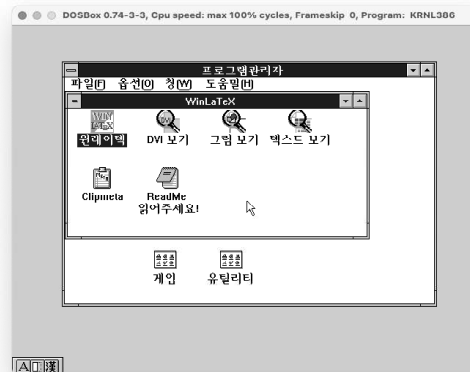


그림 2. Windows의 실행



3 WinL^AT_EX과 DVIWIN

3.1 문서 작성과 샘플 문서

그림 초창기 T_EX 시스템은 대부분 “드라이버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던 외부 그림의 처리가 문젯거리 중 하나였다. 실제 T_EX에서 ‘그림’이라 하면 간단한 선이나 원으로 이루어진 폰트를 사용하여 picture 환경에 넣는 원시적 그림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여기에 BEZIER.STY를 이용하여 곡선을 추가한다든가 하는 정도. 그러다

가 외부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그림을 문서에 넣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한참 진행중이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다.

당시 구현되었던 해결 방법은, DVI 출력에 `\special` 지시자를 통하여 그림의 크기와 소스를 지정하고 그것의 처리는 dviware에게 맡기는 것이었는데, Win \LaTeX 의 경우, bmp, wmf, pex 등의 그림을 DVIWIN이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애석하게도 `graphics` 패키지를 위한 드라이버를 제작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듯하다. `pcwintex`같은 경우에 `graphics` 드라이버가 있어서 원시적이기는 해도 오늘날 익숙한 명령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어쩌면 \LaTeX 2 ϵ 버전을 준비한다고 하였으나 결국 출시하지 못한 Win \LaTeX 이 당시 잘 되어서 개발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더라면 이 부분에서도 발전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DVI 처리기가 달라지면 지원하는 그림 포맷도 다르던 불편은 그 후 EPS라는 ‘표준’ 포맷으로 거의 천하통일이 된다. 이 사정은 \LaTeX 이 등장하여 PNG, JPG, PDF가 사실상 (새로운) 표준이 될 때까지 이어졌다.

\LaTeX 2.09 Win \LaTeX 에서 지원하던 추가 패키지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CHEMTEX, FANCYBOX, FANCYHEA (`fancyheadings`), FLEQN, FULLPAGE,
GO (`baduk`), MAKEIDX, MULTICOL, SUPERTAB, TITLEPAG, TWOCOLUM,
VERBATIM

이 패키지를 로드하려면 `\documentstyle`의 옵션 인자로,

```
\documentstyle[multicol]{article}
```

이와 같이 지정하면 되는 것이었다.

흥미로운 것으로 Win \LaTeX 에는 `softinc.sty`라는 스타일이 하나 들어 있는데, 이것은 `multicol`, `fancybox`, `verbatim`, `fancyheading`, `makeidx`를 미리 로드하고 `\figbox`라는 명령 하나를¹ 정의한 스타일이다.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필요한 패키지들을 한꺼번에 로드하는 스타일을 별도로 정의해서 쓰는 것이 유행했다. 특히 `fancybox`는 인기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박스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멋진 Win \LaTeX

샘플 문서 내가 Win \LaTeX 을 특히 중시하였던 이유 중의 하나는 그 샘플 문서 때문이었다. 그 당시 \LaTeX 에 대한 중요한 예시를 제공한다.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모두를 하나씩 열어서 코딩 방법과 결과를 구경하는 것이 이 묶음의 목적이기도 하므

¹이 명령은 이미지를 삽입하는 목적의 사용자 명령이었다.

로 각각의 샘플에 대하여서는 말을 줄이고, 그 대신 WHYTEX.HLX라는 문서에 대해서만 지적하려고 한다.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들어 있다.

1000 페이지가 넘는 문서의 타이프SETTING, 색인 만들기, 목차 수정, 그림 도표 목록, 수식넣기 등의 문제로 고민하신적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10년후 당신이 만드신 문서가 지금과 같이 인쇄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십니까? 그때 지금쓰시는 워드 프로세서의 버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적어도, 그 당시에 작성되었던 문서를 “있는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오늘날의 T_EX으로 그 내용만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문장이므로 특별히 언급해둔다.

3.2 출력

확대경 일부만 확대해서 보는 돋보기 기능은 T_EXworks에도 있고 T_EXShop에도 있는데, 실은 이것이 DVIWIN에서도 동작한다. 마우스 가운데 버튼(일부 마우스는 좌우를 동시에 누름)을 누르면 확대경이 동작해야 한다. DVIWIN의 옵션에서 확대경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한영전환 이 문제는 처음 KTUG에 올렸을 때 이를 테스트해보신 Progress께서 지적하신 것이다. 한영 전환 아이콘을 마우스로 찍어서 변환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유형 3’ 즉 Left Shift + Space로 한/영 전환을 하도록 Windows 설정을 변경하였다. 실제 써보니 이것이 더 편하다.

컴파일 시 에러를 만났을 때 지금 컴파일 시 에러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실행’ 버튼을 다시 눌러서 컴파일을 중단하기도 하겠지만 고전적인 방법은 x를 누르는 것일 터이다. 이 방법이 WinL^AT_EX에도 적용되게 해주었다.

인쇄와 PDF 파일 1990년대 당시에는 PDF 문서라는 것이 오늘날과 같은 의미를 갖지 않았다. 즉 전자문서라는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고, T_EX으로 얻는 결과는 종이에 프린트되는 것이 기본이었다. DVIWIN에서 Print를 선택하면 현재 작업이 Windows 3.1의 프린터로 전송된다.

우리는 가상의 POSTSCRIPT 인쇄기를 Windows 3.1에 설치하고 파일로 인쇄하게 함으로써, DVIWIN의 화면 보기의 결과를 ps 파일로 얻을 수 있게 하였다. 나중에 host 운영체제에서 ps2pdf를 돌리면 DOSBOX에서 작업한 내용을 PDF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DVIWIN의 출력 결과는 .dvi 파일이 있는 폴더에 _OUTPUT.PRT라는 이름의 파일로 저장된다.

물론 이렇게 얻은 PDF는 검색이 된다는가 하이퍼링크가 걸린다는가 하는 것이 없는, 단순히 300dpi로 인쇄된 비트맵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겠는가.

4 결론

이 파일 묶음은 누구라도 WinL^AT_EX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이것저것 많이 고려하여 작성한 것이다. 잠시라도 재미있는 경험을 하였으면 좋겠다.